

사자·호랑이·코끼리 “우리! 영양실조야”

■ 광주 우치동물원 한끼 식대 비교해보니

한끼 먹이 비용 대부분 타지역 절반 수준

광주 1년 예산 4억... 서울동물원은 24억

광주 우치동물원 주요 동물들의 한끼 식사값(?)이 다른 동물원의 동물들 한끼 식사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도 모자라 먹는 것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동물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발육 부진, 질병노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예산 증액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가 9일 우치동물원·서울동물원·전주동물원·테마동물원·대구달성공원동물원 등 5곳 동물원에 사는 기린·코끼리·사자·호랑이·원숭이·침팬지 등 주요 동물들의 한끼 평균 먹이비용을 분석한 결과, 우치동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적었다.

우치동물원 코끼리 한끼 비용은 1만 원인 반면, 달성공원동물원(2만6600원)·서울동물원(2만2000원)·전주동물원(2만 원)은 2만 원 이상으로 우치동물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숭이도 마찬가지다. 우치동물원 일본원숭이 한끼당 비용은 1600원인 반면, 전주동물원과 테마동물원 주주는 각각 5800원·2600원이었다. 또 우치동물원 사자와 호랑이 한끼당 비용은 3300원으로 다른 동물원보다 적게는 700원에서 많게는 3300원 차이가 났다. 전주동물원·테마동물원 주주는 한끼당 6600원이었으며 서울동물원과 달성공원동물원은 각각 5700원·4000원이었다.

기린과 침팬지는 그나마 우치동물원에

■ 전국 동물원 하루 식대 비교

	광주 우치	전주동물원	서울동물원	대구 달성공원	테마동물원 주주 (경기도 고양시)
코끼리	3만원	6만원	6만 5925원	8만원	없음
사자·호랑이	1만원	2만원	1만 7279원	1만 2천원	2만원
일본원숭이	5000원	1만 7500원	1226원	4~5000원	8000원
침팬지	1만원	3만 5500원	6815원	6~7000원	없음
기린	2만원	3만 6천원	1만 3371원	없음	없음
연간 식비예산	4억	4억 4천	24억	2억 7천	12억

서 호강을 받는 편이다. 기린·침팬지 한끼 비용은 6600원과 3300원으로 전주동물원의 1만2000원(기린)·1만1800원(침팬지) 보단 적지만 서울동물원에 사는 기린·침팬지 한끼 비용인 4400원·2200원보다는 많았다.

결과적으로 우치동물원에 사는 호랑이가 닭 한마리 먹을 때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는 두 마리 이상 먹는다는 얘기가.

동물들이 끼니를 부실하게 해결하면 영양불균형으로 저항력이 부족해지고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책

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3종·738마리를 보유한 올해 우치동물원의 사료값 예산은 4억2000만 원이다. 반면 ▲전주동물원 4억4000만 원(107종·637마리) ▲서울동물원 24억 원(332종·2710마리) ▲테마동물원 주주 12억 원(120종·800마리)중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해마다 예산을 10%씩 올려받고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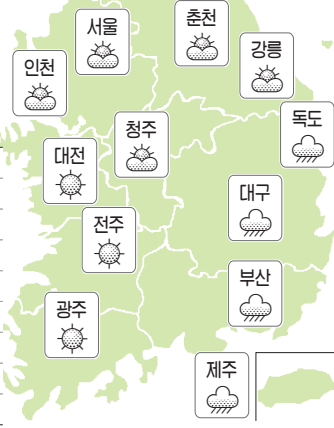
해돋이 05:26 해질 17:27
해질 19:49 달출 03:02

“물러나는 너구리”

태풍의 간접 영향에서 점차 벗어 나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4/31	보성	비	23/31
목포	맑음	23/28	순천	비	25/31
여수	비	25/30	영광	맑음	23/30
나주	맑음	24/31	진도	맑음	24/28
완도	비	24/30	전주	맑음	24/32
구례	맑음	23/32	군산	맑음	24/30
강진	비	24/30	남원	맑음	23/31
해남	비	24/29	속산도	맑음	22/26
장성	맑음	22/30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0~1.5
	면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0~2.0
남해	안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0~2.0
	면바다	북서~북	3.0~6.0	북서~북	2.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53	05:35	00:00	17:35
	06:58	01:08	19:53	13:00

◇주간 날씨

날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	☀	☁	☁	☀	☀	☀
기온	22/30	22/29	23/27	23/29	23/30	23/30	23/30

◇생활지수

식중독	88
운동	10
빨래	20



“우산 뒤집어질라”

9일 제8호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권에 든 광주·전남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바람이 불었다. 광주 동구 금남로를 지나는 행인들이 거센 비바람에 우산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임대아파트 60대 남자 나홀로 ‘쓸쓸한 죽음’

광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던 60대 남성이 나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은 뒤 수 일 만에 발견됐다.

지난 7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A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6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은 경찰에서 “(김씨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얘길 듣고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

씨는 침대 위에 반듯이 누운 상태였다.

경찰은 일주일 전부터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김씨가 10일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월남전 참전 용사인 김씨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고엽제 후유증과 혈압·당뇨 등을 앓아 경제 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십자가 지고 팽목항까지

세월호 희생 두 아버지 단원고 출발 39일간 도보행진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두 아버지가 5kg에 달하는 십자가를 어깨에 걸치고 안산 단원고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아버지들의 마음은 한결같이서일까. 아들을 떠나보낸 마음도 온전히 없을텐데 이들은 실종자 11명 모두 어둠과 차가운 물 속에서 나와 하루 속히 가족들과 만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순례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8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고 앞. 세월호 희생자 이모 군의 아버지(56)와 누나(25), 또다른 희생자 김모 군의 아버지(52)가 팽목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들을 마중 나온 수녀와 교우들이 안전하게 순례를 마치기를 바라며 마지막 목소리로 성가를 불렀다.

수녀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손뼉맞을 들었고 한 수녀는 폭염 속에 순례에 나선 아버지들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전주교 신자인 이씨와 김씨는 같은 수원교구 와동성당에 나가고 있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를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팽목항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알게 된 후 4월 30일과 5월 1일 하루 차이를 각각 피발이의 죽음을 품어 안으면서 더욱 돈독하게 형제애와 아픔을 나눠 갖게 됐다.

안산에서 진도까지 순례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인연에서다.

두 아버지와 누나는 진도 팽목항에 들러 천막에서 미사를 드린 뒤 내달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에 맞춰 대전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순례일정을 계획했다. 대전에서 교황이 집전하게 될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무려 39일에 걸친 순례 길이다. 이씨는 무게 5kg, 길이 130cm에 달하는, 못에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예수의 모습이 선명한 십자가를 들었고, 김씨는 2m가량 되는 만장모양의 깃발을 챙겨 들었다.

검정색 깃발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종이에 그린 아래로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란 글귀가 새겨 있었다. 이씨는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귀환이 가장 우선이란 생각으로 순례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23년
기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발중알가

59만원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